

자신감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야

성형수술과 정신건강

성형수술을 한번쯤 생각해보지 않은 여성이 없을 정도로 성형수술이 범람하고 있다. 강남의 어떤 거리는 한집 건너 성형외과, 피부과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의학을 미용에 응용한 것으로 병원이 라기보다는 의사 미용실이라고 보는 것이 본질상 맞는 이름일 것이다. 성형보다는 자신감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한선
아트메디 성형외과 원장

성형의 진정한 의미

자신의 외모를 다듬고 화장을 하는 여성은 아름답다. 이것은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건전한 여성이라면 그에게서 당연히 나타나는 행동이다. 하지만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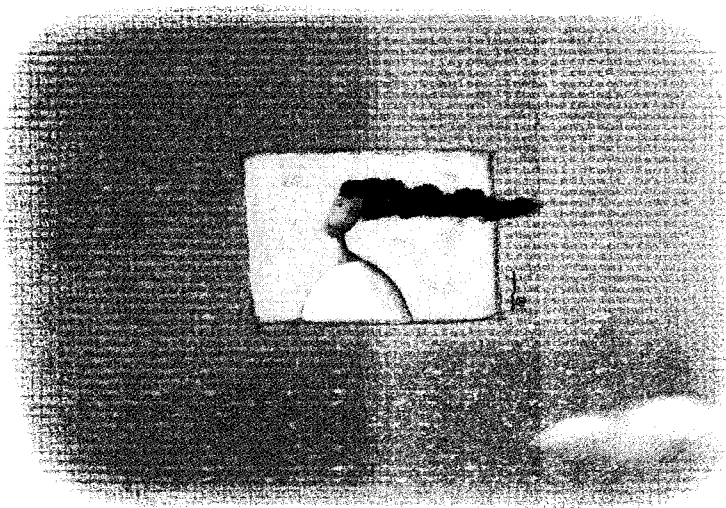
성형수술은 본래 화상환자라든가 사고 또는 각종 종양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을 담당하는 임상분야였다. 이후, 사회의 왜곡된 변화로 미모지상주의가 팽배해졌고 의사들은 미용을 목적으로 환자들의 얼굴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시내 성형외과 의원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성형수술은 미용적인 것으로서 병원도 미용실과 다름없는 인테리어를 갖추게 되었다. 각과 의사들은 이 미용분야를 서로 자기들의 고유영역이라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나누어 먹기엔 밥그릇이 너무 작아서일까...

왜 성형을 하는 걸까?

사람들은 왜 얼굴을 고치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란 그리 간단치가 않다. 눈이나 코가 지나치게 못생겨서 수술로 해결하려는 것은 어느정도 수궁이 간다.

그러나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이라 해도 좋을 만큼 많은 수가 이



미 좋은 인상과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고치려 하는 것은 왜 일까.....

필자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으로 대중매체, 특히 TV방송과 연예계를 지적하고 싶다. 외모 지상주의를 전파하는 핵심적인 기관으로서의 텔레비전 방송국이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를 갖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젊은 여성들은 방향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들 여성들에게 수술 메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정체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야말로 의사들의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돈벌기에만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자신감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든다

이들 여성들은 원하는 수술을 할지라도 얼마간의 시간만 지나면 또 다른 수술을 생각하곤 한다. 그들의 마음속에 비어있는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굴이 완벽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다.

나이가 들어 눈이 쳐지고 주름살이 깊게 패이는 것, 지나치게 낮은 코, 지나치게 사나운 눈 등이라면 의사가 환자의 외모를 위해 도와줄 만한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미 훌륭한 외모를 지닌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